



2023년 12월 25일(제1173호) 주님 성탄 대축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2023년 성탄메시지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오셨다.”

(요한 1,9)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루카 2,14) 하늘의 군대가 탄생하실 구세주께 드리는 찬미노래입니다. 추운 날에 영광과 전후방 각지에서 경계근무를 수행하는 병사들과 비좁은 배 안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하는 간부/수병들 안에 아기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구세주께서 오늘 이 밤,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성탄 축하 인사를 교구민 모두에게 전합니다.

아울러 성탄의 기쁨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어두운 밤 안에 전등 스위치를 올리면, 어둠은 온데간데없이 환한 세상이 옵니다. 예수님 탄생의 은총에 힘입어 분쟁과 갈등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광명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경사스러운 이 밤에,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 코로나19 팬데믹이 남긴 상처...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많은 사상자와 후유증을 남기고 종식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육체적·정신적 상처와 더불어 인간 삶의 방식을 총체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경제적 빈곤층이 발생했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참례자 인원이 제한된 미사와 이를 보완하기 위해 SNS와 종교 채널을 통한 방송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제한적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병 초기, 미사가 중단되었을 때의 안타까움은 서서히 신앙의 나태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어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도 많은 이들이 예전의 신앙생활로 돌아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대 내의 종교활동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최소한 주일 미사 봉헌에 충실하였던 병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주일이나, 오늘과 같은 대축일에 상당 좌석이 병사들로 꽉 찼던 것과는 달리 들성들성 비어 있는 장의자를 보면 쓸쓸한 마음입니다.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며 우리 ‘마음 안에 공간’도 더욱 커졌습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35,000여 명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들과 사별(死別)을 했으며, 잘 나가던 사업을 하루아침에 접어야 했던 가장은 좌절과 허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불투명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비관하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양극화되어 가고, 세계는 분쟁과 전쟁의 화염 속에 허무와 고통을 느끼고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자신과 가정, 부대, 사회, 세상의 ‘공간’을 채우기 위해 지금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행복을 향한 불굴의 의지와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한다.”(루카 2,10)

우리를 좌절시키고, 현실에 안주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공포가 엄습해 오면 인간은 꼼짝달짝 못 하고 주저앉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를 공포로 몰고 가던 2020년 3월 27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텅 빈 성 베드로 광장에 서서 ‘특별 기도회’를 주례하셨습니다. 교황님은 그날 마르코 복음 4장의 ‘풍랑을 가라앉히시는 기적 사회’를 들려주시며, “희망을 품기 위해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신앙의 힘으로, 이는 우리를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주며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고 덧붙이셨습니다. 큰 풍랑 때문

<2면이 계속>

##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제 1 특 시

이사 9,1-6

회 탑 송

◎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제 2 특 시

티토 2,11-14

복음 반포송

◎ 알렐루야.

○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특 음

루카 2,1-14

영 성 제 송

말씀이 사람이 되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 <2023년 성탄메시지> (계속)

에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마르 4,40)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너무 심각해하며 두려움에 가득 차 그 안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합시다. 주님께 우리의 앞날을 봉헌하고, 그분 능력에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당신께서는 즐거움을 많게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이사 9,2)**

이사야 예언자는 말합니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이사 9,1)

언제고 어둠은 걷히게 될 것입니다. 어둠과 암흑 속에 살던 백성에게 빛이 비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즐거움, 기쁨이십니다. 그분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님은 어둠을 비추시는 ‘빛, 광명’이십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하시는 성령님은 고통 속의 인간을 위로해 주시며, 사랑의 하느님과 빛이신 예수님은 연결시켜 주는 ‘고리’이십니다.

나자렛이라는 작은 고을에 살던 처녀 마리아의 태 안에 구세주를 심어주신 분이 바로 사랑의 매개 역할을 하셨던 성령님이십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구세주 잉태 소식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루카 1,35)

중요한 아버지이지만 눈으로 보일 수 없었던 하느님께서 인성을 취하여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는 그분을 보옵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으며, 하느님의 선물 곧 ‘빛과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빛을 위한 ‘2024년도 사목지침’  
- ‘화해와 치유를 위한 고해성사의 해’**

저는 지난 대림 제1주일에 2024년도 사목교서를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개인의 신앙 성숙과 세상의 화해

를 위한 고해성사에 중점을 두며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나의 영혼이 성찰과 통회를 통해 변화될 때에 우리가 몸담은 가정, 부대, 사회와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빛과 광명으로 변화됩니다.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고해성사의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유혹과 죄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를 복원하고 다시금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참빛을 맞아들일 때에 진정 믿는 사람다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빛을 품어야만 그 빛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 사랑하는 군중교구민 여러분!

성탄의 기쁨과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참 빛’이 우리만의 자리를 넘어서서 모든 자리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회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개인과 가정 문제로 번민에 싸여있는 전우들에게 탄생하신 예수님의 은총과 격려가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무고하게 희생되는 자들과 질병과 배고픔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풍성히 내려 주십사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기도는 어떤 불가능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바치는 어떤 유형의 기도도 하느님께 다다라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꼭 해야 하는 사랑의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교구민 모두가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충만히 누리시고, 이 선물과 기쁨을 이웃과 나누시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주님 성탄 대축일일  
천주교 군중교구장 시상범 티토 주교**

## 주님 성탄 대축일 낮 미사

**제 1 독 시**

이사 52,7-10

**회답 송**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제 2 독 시**

히브 1,1-6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

민족들아,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

**복 음**

요한 1,1-18

**영성제송**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